

■ 동 정

구호물품 기탁식 참석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는 4일 오전 11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코로나19 구호물품 기탁식'에 참석한다.

대구, 성실·유공납세자 선정·예우·혜택 제공

대구시가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300명과 시 세입자지원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이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납세자다.

대구시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선정대상 중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성실납세자 300명,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급고를 통한 대출금리 우대와 2년간 지역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외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과 대구시장 표창패가 수여된다.

권오정 시 세정담당관은 "대구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준 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yunki3000@naver.com

동구, 선행 릴레이 이어져

대구 동구는 최근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대구 동구 안심3·4동 소재 초당방추어탕 건물주 역시 자신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줬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28일 임대료를 감면 받은 초당방추어탕(대표 김인태)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소독용품(63개)을 구매, 동구 안심3·4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해 받은 나눔을 다시 베푸는 선행 릴레이로 동구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건물주의 선행을 또 다른 이웃에게 나누고자 한 김 대표는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는 소식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이 고마운 마음에 나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싶다"고 나눔의 의미를 전했다.

정정환 동구안심3·4동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감면, 소독용품 후원 등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불어 사는 동구 주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은 키워서 코로나19 위기를 꼭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yunki3000@naver.com

민주평통자문회의 남구협, 후원금 전달

대구 남구청은 지난 2일, 민주평통자문회의 남구협의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후원금 9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구공회 협의회장과 이갑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임원진 6명이 참석했으며, 민주평통진도군협의회에서 남구협의회측으로 전달된 현금 400만원과 남구협의회장 200만원을 포함해 총 9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윤기영 기자 yunki3000@naver.com

권영진 시장 “신도 누락 신천지교회 책임자 고발 조치”

역학조사에서 신도 관련 허위진술자도 모두 고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 1천900여 명을 숨긴 채 보건당국과 대구시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신도 수를 줄여 신고한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피고발인은 신천지 대구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지파장 최모씨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교회 신도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해 방역 대책에 혼선을 초래한 사람도 전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정부

로부터 다른 지역 신천지교회 신도 중 대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대구교회 교육생 등이 포함된 명부와 대구시가 관리 중인 신천지 대구교회 명부를 대조한 결과 대구교회 신도 1천98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가 관리 중인 교인 8천269명 외에 주소지가 대구인 다른 지파 교인 222명과 신천지 대구교회 교육생 1천761명 등 1천983명이 추가로 파악돼 교회 측이 교인 수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고발 조치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확보된 명단에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일부 포함돼 대구시가 외국인인 정확히 몇 명인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미 확보한 관리대상 신도 8천269명과 추가 확보한 1천983명

을 합하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관리 인원이 1만252명으로 늘어난다.

대구시와 보건당국은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추가로 확인된 신천지 신도 1천983명의 소재를 파악하면 모두 격리시키고 빠른 시일 내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교육생은 정식 신도가 아니어서 명단을 임의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보건당국이 지난달 27일 명단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조건 하에 명단을 파악해 오후에 즉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한 혐의(감염병 위반)로 공무원과 병원 간호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yunki3000@naver.com

대구, 20여년 해묵은 도시계획도로 토지경계분쟁 해결

서구 내당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대구 서구 내당2지구

서구는 내당동 1016-21번지 일원 '지적불합치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서구 내당동 1016-21번지 일원(서문시장 서편)은 지적도상의 토지경계와 실제현황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이 어려워 건축행위와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줌

으로써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원활이 이뤄지고 이웃 간의 토지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지역은 2001년도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으나 도로부분을 분할하지 못해 소유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할 및 소유권정리가 가능해 주민들

의 불편사항이 해결됨으로써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서구지역에는 3천200여필지가 지적불합치로 이웃 간의 토지분쟁 및 건축 등 개발사업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450여필지의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예산을 투입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방식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가치 증대, 지적측량 비용 절감 등 여러 효과를 거두게 됐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그 동안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급변 내당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고, 앞으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대구경찰, 시민 나눠준 마스크

수백장 훔친 피의자 5명 붙잡아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배포한 정부지원 마스크 223매를 훔친 A씨 등 5명을 검거, 그 중 197매를 회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대구 서구·북구 일대 공동주택 3개 단지에서 정부지원 마스크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전담팀을 편성, 집중수사에 조기에 이들을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대구 서구의 빌라 각 세대 우편함에 들어있는 마스크 95매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와 D씨는 대구 서구의 다른 빌라에서 60매, E씨는 대구 북구 아파트에서 68매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부 아파트와 빌라에서 정부지원 마스크를 신속하게 배포하기 위해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둔다는 사실을 알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이용,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급진적으

로는 경미하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은 시기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킨 만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회수한 마스크 197개는 신속히 조사과정을 거쳐 도난당한 세대에 돌려줄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절도,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yunki3000@naver.com

대구경찰, '코로나19' 관련 유치인 접견

제한 방안 마련 시행

대구경찰청이 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감염 차단을 위해 유치인 접견 제한 방안을 마련, 즉시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고자 기존의 대면 접견은 지양하고,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유치인 화상 면회' 시스템을 이용해 화상 접견토록 했다.

또, 변호인과의 접견 시 기존의 개방된 변호인 접견실 사용은 지양하고,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일방면회실에서 마스크 착용 후 접견토록 대구지방변호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특히, 유치인의 감염 예방을 위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발열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고, 유치장 내부를 상시 소독해 청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찰청은 유치인과 다수의 시민들이 대면해 감염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치인의 접근통과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선입민 변호인과 가족들에게 모두 사전에 통지하고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혼선을 방지해 시민들의 안전과 유치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윤기영 기자 yunki3000@naver.com

경아라이온스클럽, 수성 고산2동 행복나눔 공간 성품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356-A(대구)지구 제6지역 경아라이온스클럽(회장 황유정)은 지난달 28일 대구 수성구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행복나눔 공간을

이용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멸치 80봉과 컵라면 80박스(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한편, 경아라이온스클럽은 지난

2013년부터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와 후원 협약을 맺은 후 매년 후원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9월부터 고산2동 '행복나눔 공간사업'에도 매월 먹거리를 기부하며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윤기영 기자 yunki3000@naver.com

대구, 자발적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 자발적 임대료 인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 중구 종로지구 피어나길 건물주인 윤금식씨는 2개월간 임대료의 30%를 삭감하기로 했다. 종로지구 내 다른 상가 임대인들도 2~3개월간 20~33% 임대료 삭감 및 1개월간 전액 감면 등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또한, 동성로상점가에서도 양기환 상인연합회 회장이 월세 20~30% 감면하기로 했고, 김희진 부회장 등 인근 건물주들도 동참하고 있으며, 대구패션주얼리특구에 위치한 삼성귀금속 백화점 건물주는 20여개 입점 업체에 3개월간 20% 감면하는 등 자영업자 고통 분담에 나섰다.

달서구 호림동 한 건물주인 강태구씨는 이달부터 2개월간 임대료의 30%를 인하하면서 이번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참여하게 된 뜻을 전했다.

동촌유원지 내 4층건물 주인이 이모씨(56) 역시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임차인 4명에게 두달간 임대료 50%

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 수성못 인근 3층 건물을 소유한 윤성원씨는 최근 모든 세입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2월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전하는 등 대구 지역 곳곳에서 훈훈한 미담 사례가 들려 오고 있다.

이에 대구시에서도 공공기관 임대료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착한 임대료 캠페인을 골목상권 상가번영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은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에 전 국민이 참여해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상생과 공존이라는 시민정신으로 대구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과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해 민간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혜택(20년 한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앙정부·지자체 등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달성군,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운영

대구 달성군은 지난 2일부터 현풍읍 현풍백년도개비시장 주차장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3일 달성군에 따르면 의사 4명, 간호 8명, 행정 4명, 보험공단 총괄인력 1명 등 총 17명을 투입해 평일·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개인 차량을 이용한 검사자가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차 안에서 모든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차에 탄 채로 음료 등을 주문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운전자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진료접수, 문진, 체온측정, 검체 채취 등을 할 수 있어 일반 선별진료소에 비해 편리하고, 시간당 20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한명당 검체채취는 10분 정도 소요되며 하루 총 150명 정도 검사가 가능하다.

달성군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



소'는 유증상자를 우선으로 차량이동이 가능한 사람이 대상이며, 사전 전화 예약 후 차자를 이용해 검체 채취 후 귀가해 검사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최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선별진료소 방문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료를 하면 개인차량 안에서 검사를 할 수 있어 환자 간 교차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방문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yunki3000@naver.com

대선주조, 북구청에 알코올 주조원료 3t 기부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이 부산지역 향토기업으로 성장해온 대선주조가 코로나19의 방역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코올 주조원료 3t을 북구청에 기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선주조가 기증한 알코올 주조원료는 주류제조용 주정을 희석한 것으로 코로나19 방역 소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방역용 알코올에 대한 수요가 늘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류제조용 원료를 술 제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기증했다. 특히 북구는 각 동별로 배부 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등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소독하도록 해 지역주민들의 감염 우려를 완화할 계획이다.

조우현 대선주조 대표는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수습 상황이 수습돼 호전되길 바라는 마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부를 결정했다"며 "대구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이 시기를 극복하길 바라



대선주조가 코로나19의 방역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코올 주조원료 3t을 배광식 북구청장(오른쪽)에게 기증하고 있다. <북구청 제공>

며 추후에도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배광식 청장은 "특히 북구에서도 전행정력을 기울여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면서, "대선주조의 운영에 북구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